

자연 속에서 가족과의 정 쌓자

인천은봉초, 오봉산 걷기 체험 실시

인천은봉초등학교(교장 송차범)는 10월 15일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GFWD(Green Family Walking Day)를 진행했다. 이번 GFWD는 걷고 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장이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부족했던 가족과의 시간을 함께 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 가족 간의 사랑을 쌓는 기회를 가졌다.

이전에 학교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환경 피켓으로 캠페인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GFWD는 가족과 함께 오봉산 걷기와 여러 체험을 통해 건강과 추억을 쌓았다. 지역의 자연 환경을 둘러보며 정화하는 활동을 통해 애정심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에의 일원으로 성장해가는 기회를 갖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행사의 시작은 '바쁜 만들기'였다. 가족과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하는 기념으로 직접 종이에 GFWD를 기념하는 그림과 글씨를 쓰고 날짜를 새겨 배지를 만드는 것이다. 지학년 학생들 뿐 만 아니라 고학년 학생들, 어머니들까지 인기였다. 평소 GFWD에 어머니들과 학생들이 함께 했다면 이날은 아버님들의 날이었다. 아이와 함께 참여하러 오신 아버님들이 많았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과 간단한 준비 운동 후 은봉 기복 모두 함께 오봉산으로 출발했다. 1봉에서 5봉에 걸친 등산코스를 마친 후 5봉에서 가족사진을 찍는 이벤트가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김모 학생은 "토요일 아침에 늦잠을 자거나 시간 활용을 잘 못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나와 환경 캠페인도 하고 산을 오르면 상



쾌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 이모 학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힘이 들었는데 옆에서 아빠가 힘내자! 라고 말해주셔서 힘이 나고 산에서 내려오니 뿌듯해요"라고 말했다.

GFWD에 함께 참여한 송차범 교장은 "앞으로도 인천은봉초등학교는

지속적으로 GFWD 캠페인을 벌이며 전교생 모두가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며, 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어른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명섭 기자 as@

학부모 결으로 한걸음 더 다가간 자리

인천주안남초, 하반기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학부모 공개수업

인천주안남초등학교(교장 김재기)는 10월 10-14일까지 임주일강 방과후 학교 및 돌봄 교실의 학부모 공개수업을 운영했다.

방과후 학교 및 돌봄 교실의 공개수업은 학부모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방과후 학교와 돌봄 교실의 수업에 직접 참관하고 평가하는 자리였다. 이번 공개수업에는 방과후 학교 및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의 학부모 뿐 만 아니라 인천주안남초의 학부모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학생들도 평소와 같이 활발하고 생기가 넘쳐 수업에 참여했고,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한 부서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공개수업에는 학부모 약 100여 명이 참관해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했고, 평소 방과후 학교나 돌봄 교실의 수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학부모



들에게 수업을 공개함으로써 수업 내용과 방법 등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인명섭 기자 as@

참여한 한 학부모는 "방과후 학교 공개수업 참관을 통해 자녀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으며, 방과후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와 학교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고 참관소감을 밝혔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인천 근대역사 기행 실시

인천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은 지난 22일 오전 월미도 일대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학부모교육 '인천 근대역사 기행'을 실시했다.

내 고장 인천의 숨은 역사를 살펴보고 역사 인식을 일깨우고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

한 취지로 실시된 이번 인천 근대역사 기행은 남부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와 자녀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날은 인천문화관광해설사회 이미령 해설사와 함께 월미공원 내에 있는 한국전통정원을 답사하고 이

한국이민사박물관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한국전통정원은 월미도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 조선시대를 테마로 한 아름다운 전통정원이 꾸며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또한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우리나라 첫 공식 이민의 출발지였던 인천에 한국 최초로 세워진 의미 있는 곳으로, 학습자들은 큰 관심을 보이

며 해설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김병기 복지행정과장은 "이번 '인천 근대역사 기행'을 통해 학부모와 자녀가 내 고장 인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학부모교육을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청천중, 체험형 지진대피훈련

청천중학교(교장 한상욱)는 지난 10월 19일 민방위의 날을 맞아 14시부터 14시 20분까지 20분간 전국지진대피훈련을 실시했다.

평소 청천중학교에서는 7대 안전교육인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유해물질 안전, 인터넷 중독, 직업안전, 응급

처치를 우선으로 삼아 각 교과와 학교실정에 맞는 교육을 정교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 전교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전교생과 전 교직원용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진대피훈련에 앞서 평소 실시했던 재난위기대응매뉴얼에 나와 있는 행동요령을 습득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한 체험형 지진대피훈련용 교육용 실시했

다. 먼저 첫 번째 사이렌이 울리면 2-3분간 각자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다리를 잡고 1차 대피를 했고, 2-3분 후 라디오 방송에 따라 실내화주머니, 가방 등으로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며 운동장으로 신속히 질서정연하게 대피했다.

청천중학교는 이번 체험형 지진대피훈련을 통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지진현상과 관련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됐으며, 사전 교육과 체험형 교육을 연계해 더욱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인명섭 기자 as@

기대됩니다, 바른 인재가 만든 더 큰 내일

공인 내무가 놓이 자랑도, 뜻을 바로 세운 사람이 세상을 리드합니다.

올바른 인성교육과 인성교육을 선도하는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는 바른 인재를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고 성장하는 바른 인재를 양성하는 상지대학교

바른 인재를 기우는 새로운 접근방법, 상지대학교의 바른 인재가 만들어갈 더 큰 내일이 기대됩니다.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 학생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김민준)



인천남부초, 4학년 영어마을 위탁교육 체험활동 실시

인천남부초등학교(교장 김진용) 4학년 학생 101명은 지난 10월 10-14

일 4박 5일간 영어 실생활 교육의 목적으로 인천 영어마을(서구 당하동)

위탁교육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향상 시키기 위해 4학년 학생들은 4박 5일간 영어마을에 머물며 원어민 선생님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생활문화 체험,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댄스 파티, 레크리에이션 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여한 4학년 이이현 학생은 "나는 원래 영어를 싫어했는데 영어마을을 다녀온 후에 영어가 더욱 재미있어지고 더 많이 알게 됐다"며 뿌듯해했다.

이번 영어마을 체험활동은 남부초 4학년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인명섭 기자 as@

'겨름, 나눔, 어울림이 있는 시간'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서부수학원리탐구추진 개최

인천서부교육지원청(양동현 교육장)은 22일 관내 중학교 수학동아리 45개팀, 외부 한조 동아리 2개팀, 수학나눔학교 캠프동아리 1개팀, 학생 514명, 지도교사 65명이 참여하는 '겨름, 나눔, 어울림이 있는 제5회 서부수학원리탐구추진'을 인천 서부수학원리탐구대회와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축전의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가 협력하여 나누는 재도약의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은 자신들의 연구 과정을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일상 속에서의 수학을 만끽하고 느끼며, 수학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미래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으로 발돋움하는 장이 되었다.

이번 축전을 주관한 서부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는 "6년제 이어온 서부수학원리탐구대회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축전의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가 협력하여 나누는 재도약의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6년제 참여한 강모 동아리 지도교사는 "수학동아리라는 이름으로 만나 자신들의 꿈과 끼를 발전시켜, 수학의 원리를 탐구하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수학적 관계를 찾아 이를 체험하고 나누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열정적인 배움과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서 교사로서의 열정을 깨어주는 즐거운 경험"이라고 밝혔다.

서부수학원리탐구 추진을 통해 얻은 값진 과정과 결과물이 모여 수학에 대한 저변 확대 뿐만 아니라, 우리와 살 속에 쉽게 접하며 발견되는 삶이 있는 지식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